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9년 찬양대원 이번 주 임명

1999년도 찬양대원 오늘·16일(수) 임명식 찬양대 총회는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1999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이 임명된다.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 찬양대는 오늘 I·II·III부 예배, 베들레헴 찬양대는 찬양예배

시 각각 임명을 받는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글로리아 중창단과 미가엘 찬양대도 임명을 받는다. 수요일 I·II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호산나·시온찬양대는

11일(수) I·II부 예배 시에 각각 임명을 받게 된다.

찬양대는 찬양대원 임명식을 마친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총회를 갖고 찬양대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8개의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 I·II·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수요일 I·II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찬양예배를 담당할 베들레헴 찬양대는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일 I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할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리아 중창단은 기타, 크로마하프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목회자신학 세미나, 키퍼세미나 등 교회의 행사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

고 있다.

주로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미가엘찬양대는 주일 오후의 '찬양의 시간'과 금요심야기도회 시작 전 찬양집회를 담당하고 있다.

연말 특별제직회 개최

27일(주일) 찬양예배 후

98년도 결산과 99년도 예산을 위한 연말특별제직회가 12월 27일 찬양예배 후 열린다.

1999년도 찬양위원회 조직

지도 박귀환 목사

위원장 이영기 장로

서기 오승민 집사

회 계 신용식 집사

찬양대	대장	부대장	지휘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가브리엘찬양대	노문환	신용식	허희철	안진희	양경실
할렐루야찬양대	이영기	이태상	—	조은주	정은영·윤은숙
임마누엘찬양대	박철훈	맹선재	배영준	한현숙	백송희
베들레헴찬양대	성준경	오형철	임훈규	홍혜란	이현주
호산나찬양대	황정임	박우옥	박경희	홍혜란	—
시온찬양대	박두호	백수남	강민희	양경실	김지윤
미가엘찬양대	윤봉준	정동호	—	—	—
글로리아찬양대	이영기	정동호	—	—	—

새 예배당 소식

인근 주민 피해 줄여 이해 이끌어

지난 며칠간 강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 건축을 예정대로 사고없이 진행케 하셨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은 어려웠지만 인근 주민들은 추위로 방문을 꼭꼭 닫아두고 출입도 적어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소화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옛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실까지 파낸 후 굴토 작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사방으로 총총히 기둥을 박는 작업이다.

특히 건축위원들(위원장 오정수 장로)은 지난 주간에 주민 대

표들과 두 차례 만나 공사를 안전하게 할 것과 주민 피해를 가급적 줄일 것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를 기쁘게 수용하고 안전공사를 보장하는 일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면서 서울교회와 같은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주민들이 이같은 협조적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쉬임없이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와 사려깊은 생각을 하는 주민 대표들이 마을 전체 분위기를 생 각하고 취한 것으로 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이 될 주민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우리는 계획에 따라 시 공회사인 상상종합건설에 지난 11일 착수금을 지불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특별 당부와 아울러 주민들께 안전 공사에 대한 설명을 갖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0일 당회원들이 모여 현장에서 일 시작 감사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 착공식을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착공식을 갖게 될 경우 주차문제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건축위원회는 착공식을 별도로 갖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성탄절 행사

■ 성탄축하찬양예배

20일(주일) 오후 5시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20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린다. 이날의 성탄축하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에서 주관한다.

■ 성탄축하잔치

24일(목) 오후 7시

성탄절 전야인 24일(목) 오후 7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 연극과 성서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성탄절 감사예배

25일(금) 오전 5시, 9시, 11시

성탄절인 25일(금)에는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오전 9시 와 11시에 감사예배를 드린다. 교회학교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날 예배 시 드리는 감사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사야 강해

바벨론의 멸망 II

이사야 14장 12 - 20절

바벨론의 왕이 죽자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고 자연까지도 기뻐했으며 지옥에 먼저 간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하며 그를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최후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 바벨론 왕이 멸망한 이유

많은 학자들이 사탄의 기원이 바로 본문 12절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성’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지 ‘별’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서 이 별을 계명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별은 많은 별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더욱이 이 별은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비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성이 하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높이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덩이 팬밀, 곧 지옥에 던지움을 받은 것입니다(15절). 거기에서 일어나 사탄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본문을 보면 교만한 사탄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12절). 악한 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왕중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교만했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왕을 사단에 비교합니다(겔 28:11 - 19).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그를 두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 바벨론 왕의 죄

바벨론 왕은 먼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13절). 그는 아직 오르지도 못하고 다만 마음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이미 교만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천사 위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는 말입니다. 이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간파하시고 그를 음부로 집어던지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이 신이고 또 다른 나라 왕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범한 또 하나의 죄는 하늘

의 하나님과도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14절). 인간 중에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 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계

겨난다고 했습니다(19절).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거기서 썩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것이 바벨론 왕의 처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죽기 백 수십 년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가증한 나뭇가지 같이 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지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중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이중운 목사



획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를 하겠다고 덤볐으니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비극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도독할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불신앙은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3. 멸망 당한 바벨론 왕의 결국

바벨론 왕은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하게 만들 만큼 힘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공포 정치를 했던 바벨론 왕이 이제 극도로 낮아져서 땅 속 구덩이로 집어던지움을 받는 비통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그냥 알아볼 수가 없어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지도 모를 만큼 비참하게 죽은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음부(15절)에 있는 그는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있던 자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던 자가 낮고 천한 곳으로 추락된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무덤에서조차 쫓

리게 된다고 했습니다(19절). 바벨론의 황금 의자에 앉아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잘리운 나뭇가지와 같게 되고 칼에 찢려 밟힌 시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의 후손조차도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20절). 실제로 애월무로닥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대와 파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도륙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리우스 왕 때 벨사살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떠들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일어났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한 자의 결국은 멸망하고 그의 죽음까지 비참하며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이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여 멸망을 당한 바벨론의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샘터마을을 찾아간 날

김수정 (집사, 초동부 교사)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 노년에 이르는 순리야 말로 인생의 참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각종 노인성 질환 중 알츠하이머 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가 오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병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노인분들의 안식처인 샘터마을을 지난 토요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동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왔다.

복잡한 서울 도심을 빠져 나와 행주의동에 있는 샘터마을에 도착해 보니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소박한 느낌이 드는 작은 집 3채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은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원장 부부가 존장으로 계시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그 내면에는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도착 후 원장님으로부터 치매 노인분들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내부로 들어가니 깨끗하시고 단정하신 30명 남짓한 노인분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셨고 그 분

초동부 학생과 교사들이 12월 5일(토) 행주의동에 자리한 샘터마을 무의탁 노인들을 찾아뵈었다.

들이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이성득 목사님의 예배와 초동부 찬양대의 특송, 초동부 선생님들·친구들·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한 찬양과 율동, 그리고 초동부 친구들·선생님들이 지난 7월부터 준비한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 계시는 무의탁 치매 노인 30여 분은 처음 들어오실 때는 그 치매 정도가 중중이었으나 이곳에서의 사랑과 믿음의 손길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삶의 기쁨을 찾으며 한기죽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한 생명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샘터마을에서 돌아오면서 사랑을 나눠 드리려고 간 우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하고 오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아름다운 봉사

이영주 (4교구, 식당봉사)

하나님 은총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작은 봉사를 통해

작은 섬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사랑의 대접과 수고의 손길로 온 성도를 감사의 식탁으로 이끌어 서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심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점점같은 더위, 얼음 어는 겨울의 주방을 마다않고 달려오시는 발걸음, 손길.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해주심

오 주여 감사 또 감사합니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행하면 이해한다고요?

예, 이 작은 봉사의 기회를 주시고

한순간 순간 소중히 드리게 해주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큰 감사로 번져갈 작은 불씨

한주찬(집사, 사랑부 교사)

해마다 12월이 시작되면 가로수와 빌딩 숲 사이를 밝히곤 하던 성탄 트리 장식.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든 1년 중 생활의 중요한 한 획을 차지하며 분위기를 돋궈 오곤 했던 것이, 올해에는 예년같지 못하다는 소식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 생각이 많아진다.

우리 사랑부에서 12월 첫 주일 성탄 나무를 세워 장식하고 점등하는 행사를 가졌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사 9:2)는 말씀을 주제 내용으로 삼았다. 사랑부실 안의 조명을 꺼 모든 빛을 차단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악과를 대신한 사과를 달고 그위에 장미송이로 장식하고 생명의 떡

에 대한 말씀을 봉독하고 찬양을 드린 후 점등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순서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준비된 프로그램을 잘 마쳤다는 자족감과 풍성함이 있기에 앞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행사가 교사인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던 까닭이었다.

능숙치 못한 말투, 절제가 어려운 행동, 어수선한 분위기... 이해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랑부 학생들의 공간인 어두운 교실에서 읽을 수 있는 저들만의 진지함과 순수함, 하시라도 참여 순서에 빠지거나 앓을까 염려하며 차례를 기대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채워져야 할 것은 무

엇이어야 할까. 교사라는 직을 가진 우리는 과연 저들의 누구였을까 하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가르침, 보살핌, 희생, 사랑 등 여러 가지 생각과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됐다.

단순 행사에서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밝히 드러내는 기회였기를 소원하며 감사를 드렸다. 구겨짐이 없는 저들의 영혼과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족해하는 얼굴에서 오히려 교사인 우리가 배우고 은혜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에 저들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를 드렸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사랑부실 한 모퉁이에서 비록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점등행사가 씨앗이 죽어야만 싹나며 자라고 열매맺듯이 사회 곳곳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불씨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1999년도 예배위원회 조직

지도 이순환 목사 위원장 성준경 장로

서기 오형철 집사(정) 김규태 집사(부)

회계 김중근 집사(정) 이안순 집사(부)

담당	부장	음향 조명	강단	헌금 책임	안내		
					총	남	여
주일 I 부	홍일성	서경숙 권효진	김혜영	김혜련	1 현	오민세, 홍일성 김희석, 조철기	임경희, 이명아, 김혜영
주일 II 부	김중근	권오현 김민철	최승욱	강희자 전행자	1 2 현	김중근, 김시환 오형철 구동철, 이종호	김미자, 서화자, 최승욱 이안순 한정아
주일 III 부	김규태	권오철 박영애	이기숙	최미아	1 현	신순우 김규태	강인희 이기숙
찬양예배	유중관	손지은 김민철	이안순	강희자	1	유중관, 오유식 오도식	이안순, 김수호
수요 I 부	이안순	서경숙	이안순		1		이안순, 윤숙지, 나기태
수요 II 부	김규태		금용숙		1	김규태, 장 덕	강인희, 금용숙
새벽기도회	김경아(주일), 한정아, 박성현, 김은숙(월~토)						
금요기도회	이관규, 이점숙, 원복순						
성례부	이영자	강희자, 김숙자, 김정희, 김종자, 박연순, 박정순, 손재겸, 여옥기 우선자, 이수자, 이영희, 이인선, 이정자, 전인화, 최양혜 세례수 담당: 박경희(1부), 이해순(2부)					

헌금위원: 김혜련 김권집 송인권 안창휘 조성영 김규희 김은숙 배은희 왕경애
왕경희 이봉규 전완순 (이상 I부)
강희자 김영주 박두영 유중관 이남성 최재규 홍한규 금용숙 김두희
김영심 남태순 박유미 송향란 정정숙 최금자 최양혜 한전선 전행자
오유식 장양일 김차순 오영숙 (이상 II부)
최미아 최형렬 홍정선 박미혜 송옥혜 이경희 이명희 이순영 이영희
이자혁 임순자 임윤자 황보추자 (이상 III부)

10주년 역사편찬위 구성

교회설립 1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역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광신 장로

동정

◇이종운 목사는 15일(화) 군복
음화후원회 주최로 군복음화에
기여한 교회와 개인을 표창기
위한 심사위원회에 참여한다.
또 이날 숭실대학교 기독교문화
연구소(소장 김영한 목사)가 주

최하는 세미나에서 "박윤선 신
학과 한국교회"라는 제하의 특
강을 한다. 17일(목)에는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 이종운)
가 주최하는 목사제복평가위원
회를 소집한다.

◇박정선 집사(10교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는 1년간 미국 템
플대학교 초빙교수로 초청되어
내년 1월 22일출국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안창휘 집
사·정봉금 권사 가정에서 제
공했다.

서초 연합성가발표회 결식아동돕기 행사도

17일(목) 서초구민회관에서

98년 성탄절 축하 행사로 제2
회 서초교구 연합 성가발표회와
예수성탄의 온정나누기 행사가 17
일(목) 오후 7시 서초 구민회관
에서 열린다.

서초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올해
2회째를 맞는 성가발표회에는 우
리 교회를 비롯 11개 교회가 참가
한다. 또 이날 예수성탄 온정나누
기를 통해 교구내 250명에 이르
는 결식 아동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후원은 서초
구청에서 맡는다.

토요 주례요청 다시 생각!

"목사님께 토요일을 돌려 드립
시다."

이미 지난 8월 당회에서 말씀
준비를 위한 시간과 건강 보전을
위해 이종운 목사의 토요일 결혼
주례 초청을 삼가줄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
을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신성한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목
사님의 시간과 건강 확보가 더 중
요하다고 보고 부득이 이러한 결
의를 하게 됐다고 당회는 밝히고
있다. 또 주일예배를 위해 토요일
에는 교회당에서의 결혼식을 거
행하지 않기로 했다.

순례자 컬럼

기묘자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참으로
이상한 분이셨다. 주전 800년
경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예
언을 하면서 그 별호로 기묘자
라고 불러주었지만 그는 실로 기
묘한 분이셨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부
터 인간의 상식과 이해의 범위
를 넘어선 것이며 세상에 오시
어 행하신 수다한 기사와 베푸
신 이적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
는 사건들이었다.

이처럼 그의 생애는 경이와
이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참으로 기묘하신 인
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참 하나
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 되
신 신·인 양성을 입으신 예수
의 인격 또한 기묘하다.

예수는 십자가 상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
음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
마다 구원하였으며 삼일 만에 약
속대로 부활하시고 사십일 만에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
속을 주신 것도 인간 이성으로
는 이해되지 않는 기묘자의 말
씀이다.

■ 이종운 목사 방상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찬양대를 위해
2. 교회의 연말연시 행사를 위해
3. 대강절 기간동안 성탄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